교육부 휴원 권고 도내 학원가 '촉각'

도내 일부 학원·교습소 오늘부터 임시 휴원
일부선 "사태 장기화 시 경영난 우려" 속앓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 휴원을 권고하면서 제주지역 일부 학원이 오늘(25일)부터 임시 휴원에 들어간다. 일부에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영난을 우려하며 속을 앓고 있다.

24일 제주도교육청과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도내 학원 1116곳 중 24%(271곳)가 이튿날부터 휴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교습소도 10곳 중 2곳(전체 418곳 중 92곳) 이상이 임시로 쉬기로 결정했다. 학원의 경우 대부분 일주일 가량 휴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가 이날 도내 모든 학원에 3월 1일까지 휴원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고성만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오늘(24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모든 학원에 휴원을 권고했다"며 "휴원 기간에 학원 내 소독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원에 나서는 학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 차원의 휴원 권고인데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휴원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되는 탓이다.

서귀포시에 있는 한 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한달 비즈니스'라고 할 만큼 매달 수강료를 받아 운영된다"며 "휴원에 따른 보충 강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학원비가 감소해 강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내 상당수 학원이 휴원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보다 늘어도 휴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염증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휴원을 하는 학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앞으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을 반영해 도내 학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지법 내달 6일까지 휴정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도 특별휴정에 나선다.

제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특별 휴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지 글을 올리고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경우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방청객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때까지 법원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상시 발열체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일시중단되는 가운데 24일 휴관 조치 사실을 모른채 우당도서관을 찾은 한 시민이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서관·체육관 모두 문 닫혔다

24일 기점 1주일간 휴관
일정 연장과 변동 가능성
마을내 문화공간도 폐쇄

제주도내 도서관과 체육관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조치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도서관과 체육관 등은 이날을 기점으로 1주일간 임시 휴관한다. 휴관 대상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21곳(제주도 15곳·교육청 6곳)과 작은도서관 45곳, 공공체육시설 133곳, 학교체육관 131곳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이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것이다.

시설마다 휴관 일정이 다르고 감염자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 전에 해당 시설에 문의하는 게 좋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제주도서관은 도서관 시설 공사 일정과 맞물려 3월 31일까지 문을 닫고, 그 외에 동녘도서관, 서귀포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한수풀도서관은 3월 8일까지 2주간 휴관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의 방문이 잦은 마을 내 문화공간도 문을 닫았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9곳과 읍면동 문화의 집 10곳이 3월 1일까지 임시 휴관한다. 제주시는 새마을작은도서관 79곳에도 휴관을 권고한 상태다.

제주시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PC방과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소독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 입장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현재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 14일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격리 수칙 반드시 준수
거부하면 300만원 벌금
도, 생필품과 생활비 지원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68명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제주지역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168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증상이 발현된 대상자는 없는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제주도 역학조사팀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판명되면 지역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 판명 사실을 통보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최대 14일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보건소 및 119구급대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접촉을 피해야 하며, 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격리자들은 수건, 식기류 등 개인물품을 혼자 사용하고 의복 및 침구류도 단독 세탁하는 등 개인 물품 사용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격리 대상자는 보건소 등에서 제공한 위생키트를 이용해 호흡기 증상, 체온 측정 등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시 등에 편성된 1대1 자가격리자 공무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된다. 이후 특별한 증상 없이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를 항상 지켜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2주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식을 갖고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편의를 위해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만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현석기자

제주 자가격리자 324명 아닌 168명

도 "선제조치 이후 추가조사 통해 최종 확인"

2번 확진자 동선 3곳 공개

제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과 접촉해 자가격리한 인원이 총 168명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1번(22·해군 상병)과 2번(22·여·호텔 직원)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각각 87명, 81명 등 총 168명으로 모두 자가격리 중이다. 현재까지 증상이 발현된 접촉자는 없는 상황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도내 시설 27곳은 방역 소독이 실시됐다.

23일 발표된 자가격리자 324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이유는 초기 구두진술을 토대로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진행된 CCTV·카드 사용 내용 등의 추가 조사를 통해 공식적인 자가격리자가 선별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제주도는 2번 확진자에 대한 추가 동선 3개소도 발표했다. 제주 2번 확진자 A씨는 대구 출신으로 지난 13일 항공편을 이용해 대구를 방문한 뒤 16일 오전 11시30분 제주로 돌아왔다. 18일 새벽부터 두통과 몸살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돼 있다.

한편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 확진자 호칭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부여하는 확진자 번호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확진자는 139번(제주 1번), 두 번째 확진자는 222번(제주 2번)으로 표시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주시공처 ·건입동 현대아파트 ·외도 일우아파트 외)
특징 통기성 (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 이 있어 들뜨지 않습니다.
용도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콩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팬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벽돌면
○ 스톤면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 성지요양원

타일면 : 이도아구찜빌딩
슁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미건빌라
자외선에 삭(부식)아 있는 슁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덴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흘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품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재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 주의바랍니다.